

예비분석보고서

주세 정책이 경제·물가에 미치는 영향

가설 H1·H2·H3를 공개데이터로 먼저 검증한 예비 실증결과 — 데이터·코드 수록

한국주류산업협회 의뢰 · 2026년 7월 · 공개 공식통계만 사용(국세청·식약처·한국은행·통계청·DART·재정패널) · 협회 자료 미사용

★ 2026. 9 갱신 — 최신 실증결과 요약

협회 제공 대표제품(참이슬·카스)·국세 제조/수입 시계열·베이지언(문헌 결합)을 반영해 2026.7 예비분석(본문)을 갱신·정밀화함. 수치는 **잠정(재검증 중)**이며, 원자료 의존 항목은 승인환경 추정으로 확정 예정.

H1 · 가격전가

- **소주(주종)**: 2024 기준판매비율로 소매가 **-6.3%**·물가기여 **-0.011%p**. 국세 실측 세전 출고가 2,171→1,889원/L(-13%), 리터당세금 -13%. 국세·식약처 교차검증 비율 0.796(이론 0.78).
- **참이슬(제품)**: 출고단계 전가율 **0.76**(세금 인하의 3/4 전가·나머지 마진 흡수).
- **맥주(주종)**: 세제효과 미미 — 출고가 2020→2024 +18.9% 중 세금 기여 +6%p, 나머지는 **원가 요인**(2024~25 세금 불변에도 상승) → 향후 세제 시뮬레이션의 원가 기준선.
- **채널(신규 확정)**: 가정 -6.3% vs 외식 -0.1%, **DiD +5.2%p(t=4.8)** → 세금 인하가 **가정 단계엔 전가·외식 단계는 흡수(미전가)**. 맥주(가정·외식 무변)로 위약대조.

H2 · 가격탄력성 (베이지언 사후)

계층	거시(통제후)	사후 ϵ [95% CI]
주류전체	-0.92	-0.55 [-0.77,-0.33]

홈

← 뒤로

소주(증류주類)	-0.29	-0.61 [-0.83,-0.40]
맥주	불안정	-0.38 [-0.58,-0.19]

- 무통제 시 (+) 편의(내생성)가 **교차가격·코로나·규제** 통제로 (-) 교정. 문헌(Wagenaar 2009·Nelson 2013)을 **베이지언 사전분포**로 결합 → 사후 모두 CI가 0 배제.
- **소득분위 미시탄력성**: 집계로는 미식별 확인 → 재정패널·가계동향 원자료(2024 자연실험)로 확정 예정.
- **연관산업**: 거시 주점업 파급 null(코로나 제외) — 외식 미전가(H1)로 설명. 미시(가계동향 외식지출)로 재검증.

H3 · 세수효과 (단기·장기)

- **단기(순 정책효과·인과분리)**: 관측 세수변화(2022→2024) -2,373억을 분해하면 **순 기준판매비율(정책) 효과 -3,130억 + 비정책(원가상승·물량) +756억**. 원가 상승이 감세분을 일부 가려 **관측치가 정책비용을 과소평가**하며, 순수 정책 세수효과는 **-3,130억**(참이슬 교차검증 병당 -132원, 국세청 발표와 일치).
- **장기(동태 시물, 소주 사후 $\epsilon=-0.61$)**: 주세 단독은 비탄력이라 회복 어려우나, **부가세·연관산업·양성화 포함 국가 총세수는 중장기 회복**(낙관 시 초과 증가).
- **민감도(회복 조건)**: 회복은 연관세수·탄력성·양성화가 좌우(전가율·조정속도는 부차적). **주세 단독으로는 미회복**이며, 총세수 관점에서 소주 탄력성 -0.61 이상+연관파급이면 2~7년 내 회복.

향후 계획

- **소주 미시 가격탄력성** — 가계동향·재정패널 원자료로 2024 가격인하의 **정책 시행 전후 비교**(소득분위별 반응·외식 부문 파급 포함)
- **맥주 제품 전가** — 카스 10개년 자료 확보 시 2020 종량세 전환 구간까지 분석
- **탄력성 정밀화** — 소매 스캐너(닐슨·칸타) 자료 확보 가능 여부 검토
- 이상 정리되는 대로 **중간보고**

※ 본문(2~4장)은 2026.7 예비분석 원안이며, 상기 갱신 요약이 우선한다.

목차

연구계획서가 “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”라면, 이 보고서는 착수 전 공개데이터만으로 **실제로 무엇이 보였는가**를, 재현 가능하도록 **데이터·코드와 함께** 정리한 예비 실증결과다.



1. 배경과 분석 틀
← 뒤로

- 2. H1 · 가격 — 세제에서 출고가, 소비자가까지
- 3. H2 · 매출 — 소비자가에서 매출, 연관산업 · 소득분위
- 4. H3 · 세수 — 깎으면 얼마가 줄고 얼마가 돌아오나
- 5. 데이터 · 코드 · 재현

CHAPTER 1

배경과 분석 틀

1.1 왜 지금인가

국내 주류산업의 위축은 인상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된다.

표 1-1. 주류산업 위축을 보여주는 세 지표

지표	변화	출처
전체 주류 출고량	2015년 376만kl → 2024년 322만kl (-14.2%)	국세청 국세 통계
가정용 주류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	2008년 1.54% → 2024년 0.75% (반감)	재정패널
동네 주점 사업자 수	호프주점 약 -47% · 간이주점 약 -52%	예비분석

술 소비의 위축은 제조업에 그치지 않는다. 술은 식당·호프집에서 팔리므로, 소비 감소와 외식 위축이 겹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동네 소상공인이다.

1.2 세 가설과 분석 틀

세제 → 출고가 → 소비자가(H1) → 매출(H2) → 세수(H3)



H1 (가격) 세제 변화 → 출고가 → 소비자가로 얼마나 전가되는가 · H2 (매출) 소비자
← 뒤로
가 변화 → 수량·매출 — 탄력성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하고 연관산업(음식점) 효과까지
· H3 (세수) 세제 변화 → 세수 순효과(H2의 탄력성이 입력)

핵심 착안은 **PPI와 CPI를 나누고, 소매 CPI와 외식(음식점) CPI를 다시 나눠 보는 것**이다. 가격차가 곧 유통·판매 단계가 흡수하거나 전달한 몫이다.

CHAPTER 2 · 가설 H1

가격 — 세제에서 출고가, 소비자가까지

세금이 바뀌면 그 부담(또는 감면)이 어느 단계에서 흡수되고 어디까지 전달되는지를, 서로 다른 공개데이터로 단계별로 관측한다.

2.1 분석 설계 — 전가 사슬

주세 → 세전 출고가 → 출고가(세포함) → 소비자가

국세청 세액·과세표준 · 식약처 판매액 · DART 회사 출고단가 · 한국은행 PPI/소매 CPI/외식 CPI

세제가 실제로 바뀐 두 시점(소주 2024.1 기준판매비율, 맥주 2020.1 종량세 전환)을 골라 **event study**로 계단 이동을 측정하고, 국세청과 식약처 두 독립 자료로 세전출고가를 **교차검**증한다.

▪ 사용 데이터

liquor_shipment_tax.csv(국세청 주종별 출고량·세액·과세표준, 2006~2024) ·
mfs_sales.csv(식약처 주종별 판매액) ·
cpi_liquor_monthly.csv·ppi_liquor_monthly.csv(한국은행, 2006~2025 월별) ·
dart_product_price.csv(DART 제품 출고단가). [데이터 카탈로그](#)에서 열람·내려받기.



홈

← 뒤로

2.2 코드 — 세전출고가 교차검증

두 독립 자료로 소주 세전출고가를 계산해 비율로 교차검증

```
import pandas as pd

tax = pd.read_csv("liquor_shipment_tax.csv") # 국세청: 과세표준·출고량
mfds = pd.read_csv("mfds_sales.csv") # 식약처: 판매액

# 국세청 경로: 세전출고가 = 과세표준 / 출고량 (종가세 주종)
nts = (tax[tax.주종=="희석식소주"]
        .pivot(index="year", columns="지표", values="값"))
nts["exfactory_nts"] = nts["과세표준"] / nts["출고량"]

# 식약처 경로: 세전출고가 ≈ 판매액 / 출고량
m = mfds[mfds.주종=="소주"].set_index("year")
ratio = (m["판매액_천원"]/nts["출고량"]) / nts["exfactory_nts"]

print(ratio.loc[2018:2024].round(3))
# 2018~2022: 0.99~1.05 (일치) · 2024: 0.796 ← 기준판매비율 이론값 0.78
```

2.3 결과 ① — 교차검증: 신뢰성의 상호 입증

두 자료로 도출한 소주 세전출고가 비율은 2018~2022년 내내 0.99~1.05로 일치했고, **2024년에만 0.796으로 벌어졌다**. 이 값은 기준판매비율(소주 22% 차감)의 이론값 **0.78**과 오차 2%로 맞아떨어진다. 서로 다른 기관의 자료가 제도의 이론값에서 만난다 — 이 어긋남은 오류가 아니라 **제도가 데이터에 남긴 지문**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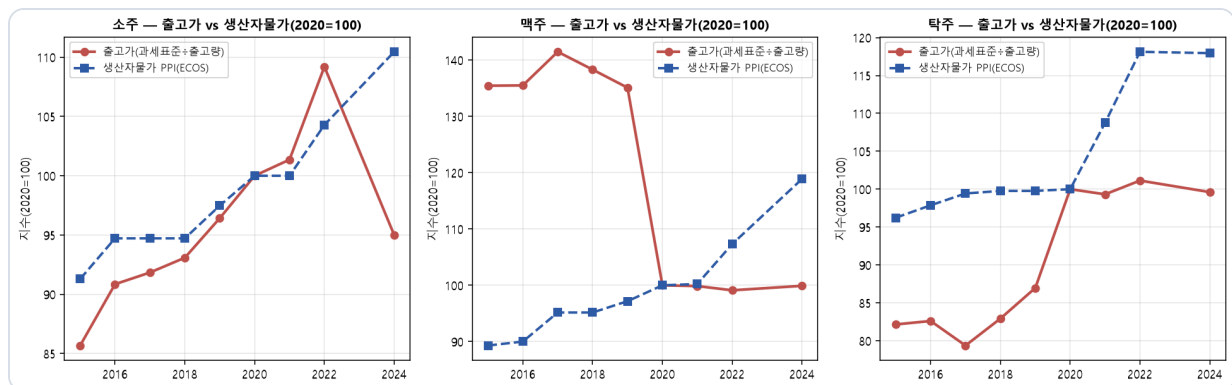


그림 2-1. 주종별 세전출고가 지수와 PPI(국세청·식약처·한국은행)

홈

2.4 결과 ② — 두 정책 사건(event study)

← 뒤로

(가) 소주 · 2024.1 기준판매비율(과세표준 22% 인하)

표 2-1. 소주 · 기준판매비율 시행 전후

	직전(2023.12)	시행(2024.1)	계단 변화
PPI	106.5	110.9	+4.1%
CPI	116.8	109.4	-6.3%

소주 CPI는 2023년 11~12월 제조사 출고가 인상으로 116.8까지 올랐다가, **2024년 1월 기준 판매비율 시행으로 109.4로 급락**해 이후 108 안팎에서 안정됐다. 세부담 완화가 **직전의 원가 발 인상을 되돌리는** 방식으로 작동했다. 같은 시점 PPI는 오히려 올라(+4.1%), **소비자**가 **내리고 생산자**가 **오르는 ‘가위’** 형태가 핵심 장면이다.

DART 교차검증: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단가(세포함) 1,523(’23)→1,617(’24)원/L(+6.1%). 공장도 가격은 원가로 올랐으나, 판매단계 과세표준을 낮춘 기준판매비율이 **소비자 단계에서 인하를 실현**했다는 해석과 정합적이다.

(나) 맥주 · 2020.1 종량세 전환(세수중립)

표 2-2. 맥주 · 종량세 전환 전후

	직전(2019.12)	시행(2020.1)	계단 변화
PPI	97.9	100.0	+2.2%
CPI	100.0	100.2	+0.2%

맥주 종량세 전환은 리터당 실효세금이 726→726원으로 사실상 불변인 **세수중립 개편**이었다. PPI는 +2.2% 올랐지만 **CPI는 사실상 불변(+0.2%)**이었다 — 생산자 단계의 소폭 조정이 유통마진에서 흡수되어 소비자가로 거의 전가되지 않았다. **세부담이 실제로 줄 때만 소비자**가 **가 움직인다**는 것을 두 사건이 함께 보여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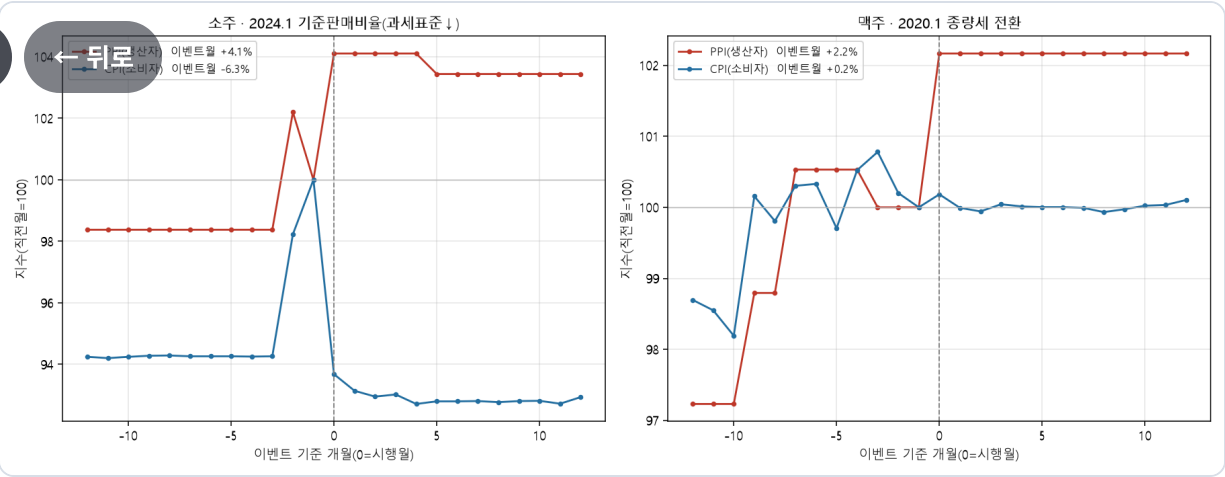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-2. 세제 시행 전후 PPI·CPI의 계단 이동(사건연구)

2.5 결과 ③ — 소비자물가지수(CPI) 기여도

전가로 확인된 소비자가 변화는 곧바로 **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**으로 환산할 수 있다. 방법은 단순하다 — 주종별 소비자가 변화율에 그 품목이 물가바구니에서 차지하는 **가중치**를 곱해 더하면 전체 물가(headline CPI) 기여도가 된다. 별도 모형 없이 H1 전가분석 결과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.

$$\text{headline CPI 기여도}(\%p) = \sum_j (\text{가중치}_j \div 1,000) \times \text{소비자가 변화율}_j(\%)$$

가중치는 통계청 「2020년 기준 품목 및 가중치」의 1,000분비 공표값을 그대로 사용한다.

표 2-3. 주류 품목 CPI 가중치(통계청, 2020년 기준, 1,000분비)

부문	소주	맥주	막걸리	기타 (과실주·양주·약주)	합계
가정용(02 주류·담배)	1.7	3.0	0.5	1.3	6.5
외식(11 음식·숙박)	2.5	4.8	0.3	—	7.6
전체	4.2	7.8	0.8	1.3	14.1

가중치와 전가 결과를 결합해 headline CPI 기여도(%p)를 계산

홈

```
# 통계청 2020 기준 CPI 품목 가중치 (1,000분비)
w_home = {"소주":1.7, "맥주":3.0, "과실주":0.8, "막걸리":0.5, "양주":0.4, "약주":0.3}
w_eat = {"소주":2.5, "맥주":4.8, "막걸리":0.3}

def contrib(w, dp): return w/1000 * dp # 기여도(%p)

# 2024.1 소주 기준판매비율: 소매 소주 CPI 116.8 → 109.4
dp = (109.4-116.8)/116.8*100 # = -6.3%
head = contrib(w_home["소주"], dp) # = -0.011%p (가정용 소주 직접)
```

(가) 예비분석 — 공개 CPI로 관측한 기여도

공개 월별 소비자물가지수(소주·맥주·막걸리·양주, 2006~2025)로 정책 시점 전후 계단을 직접 측정하고 가중치와 결합했다.

표 2-4. 예비분석 ① — 정책 사건별 관측 기여도

정책 사건	소매 CPI 변화	headline 기여
소주 기준판매비율(2024.1)	116.8 → 109.4 (-6.3%)	-0.011%p
맥주 종량세 전환(2020.1, 세수중립)	100.0 → 100.2 (+0.2%)	+0.001%p

표 2-5. 예비분석 ② — 가정용 주류 통합 CPI(가중) 상승률과 headline 기여

연도	통합지수	전년비	headline 기여
2023	110.3	+2.4%	+0.014%p
2024	112.3	+1.9%	+0.011%p
2025	113.5	+1.1%	+0.006%p

소주 기준판매비율은 관측상 소매가를 -6.3% 끌어내려 물가를 -0.011%p 낮췄고, 세수중립인 맥주 종량세는 CPI를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(+0.001%p) — 세부담이 실제로 줄 때만 물가가 반응한다는 전가분석 결론과 그대로 맞물린다. 주류 부문 전체로도 통합물가 상승률이 2023년 +2.4%에서 2025년 +1.1%로 둔화하며 headline 기여도가 +0.014→+0.006%p로 축소됐는데, 이는 세제 완화가 주류발 물가압력을 누그러뜨린 방향과 정합적이다.

(나) 참고 시나리오 — 전가율별 정책 패키지



표 2-6. 세제 완화 시나리오별 headline CPI 기여도

시나리오	주류 소비자가 변화	headline 기여
벤치마크 — 주류 일률 -1%(가정용)	-1%	-0.0065%p
벤치마크 — 외식 포함 전체 -1%	-1%	-0.0141%p
패키지 — 완전전가($\beta=1$)	소주 -6·맥주 -3·막걸리 -2%	-0.020%p
패키지 — 부분전가($\beta=0.8$)	위 $\times 0.8$	-0.016%p

주류는 물가바구니 비중이 작아(가정용 6.5%, 외식 포함 14.1%) 세제 완화의 **headline 직접효과**는 백분의 몇 %p 수준이지만, 물가를 **끌어내리는 방향**은 예비분석에서 관측된 크기로 확인된다. 위 계산은 **소매 단계 직접효과**에 한정되며, 주류 가격 하락이 외식물가로 번지는 **간접효과**(외식 주류 가중치 7.6%)는 전가율에 따라 크게 달라져 H2의 연관산업 분석에서 대조군을 둔 회귀로 특정한다.

CHAPTER 3 · 가설 H2

매출 — 소비자가에서 매출, 연관산업·소득분위

가격이 변하면 소비량과 매출이 얼마나 반응하는지(탄력성), 그 변화가 음식점업 매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,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세부담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본다.

3.1 분석 설계 — 탄력성과 세부담

주종·소득분위별 수요함수로 **가격탄력성·소득탄력성**을 추정하고, 재정패널로 **소득분위별 주류 세부담(형평)**의 분포를 산출한다. 탄력성은 하나의 방법에 기대지 않고, 자료 성격이 다른 여러 접근법을 교차 적용해 추정치의 강건성을 확인한다.

표 3-1. 가격탄력성 추정의 다양한 접근법

접근법	데이터·식별	산출	특징·용도
① 로그-로그 수요함수(OLS)	주종별 출고량·소비자물가(연·월)	주종별 가격탄력성	기본형·해석 용이, 기준선



② **고점효과** 패널
(주종·연도 FE)

② 교차효과 패널 (주종·연도 FE)	주종 패널 + 연도 더미	이질성 통제 탄력성	관측 안 되는 주종별 요인·공통 추세 제거
③ 도구변수(IV)	세제 변화(기준판매비율·종량 세 전환)를 가격의 도구로	내생성 보정 탄력성	가격·수요 동시결정 완화, 사건연구와 결 합
④ 동태 패널(부분 조정)	시차 수량을 포함한 시계열 패 널	단기·장기 탄력성 분리	음주 습관·조정 지연 반영
⑤ 준이상수요체계 (AIDS/QUAIDS)	주종별 지출비중·상대가격	자기·교차탄력성, 주종 간 대체·보 완	체계적이나 자료 요 건 큼(보조·확장)
⑥ 소득분위별 수 요함수	재정패널 가구지출 + 주종별 CPI·대표제품 가격(DART) 결 합	소득분위별 가격· 소득탄력성	H2 형평 분석의 핵심 축
⑦ 준실험(사건연 구·이중차분)	세제 미변경 주종을 대조군으로	준실험적 전가·수 요 반응	인과 식별력이 가장 강함

①~④는 시장 전체 탄력성, ⑥은 계층별 탄력성, ⑤는 주종 간 관계, ③·⑦은 인과 식별을 각각 강점으로 한다. 본 연구는 이들을 병렬 적용해 추정치가 방법에 관계없이 일관되는지 확인한다.

▪ 사용 데이터

cpi_liquor_monthly.csv(가격) · liquor_shipment_tax.csv(수량=출고량) ·
household_alcohol.csv(가계동향 소득분위별 주류지출) · nastab_alcohol_panel.csv(재정패널
1~17차 소득분위별 지출·세부담).

3.2 코드 — 로그-로그 수요함수(가격탄력성)

주종별 출고량(Q)과 소비자물가(P)를 로그-로그 회귀 → 가격탄력성

```
import pandas as pd, numpy as np
import statsmodels.formula.api as smf

q = pd.read_csv("liquor_shipment_tax.csv") # 출고량(수량)
p = pd.read_csv("cpi_liquor_monthly.csv") # 소비자물가(가격)
```



```
df = merge_year(q, p) # 주종·연 결합
df["lnQ"], df["lnP"] = np.log(df.Q), np.log(df.CPI)

# 주종 고정효과 + 연도 추세 통제
m = smf.ols("lnQ ~ lnP + C(주종) + year", df).fit()
print(m.params["lnP"]) # ≈ -0.26 (주종 간 가격탄력성)
```

3.3 결과 ① — 수요는 완만히 반응한다

국제 표준 메타분석은 맥주 -0.46, 증류주 -0.80, 전체 -0.51로 술이 대체로 비탄력적임을 보고한다(Wagenaar 외, 2009). 국내 공개자료 예비추정에서도 **주종 간 가격탄력성은 약 -0.26**, 소득탄력성은 +0.15~0.30이다. 값이 10% 내려도 수량은 약 2.6% 느는 데 그친다 — 세제 인하가 소비를 급증시키지는 않으나 매출·거래를 완만히 떠받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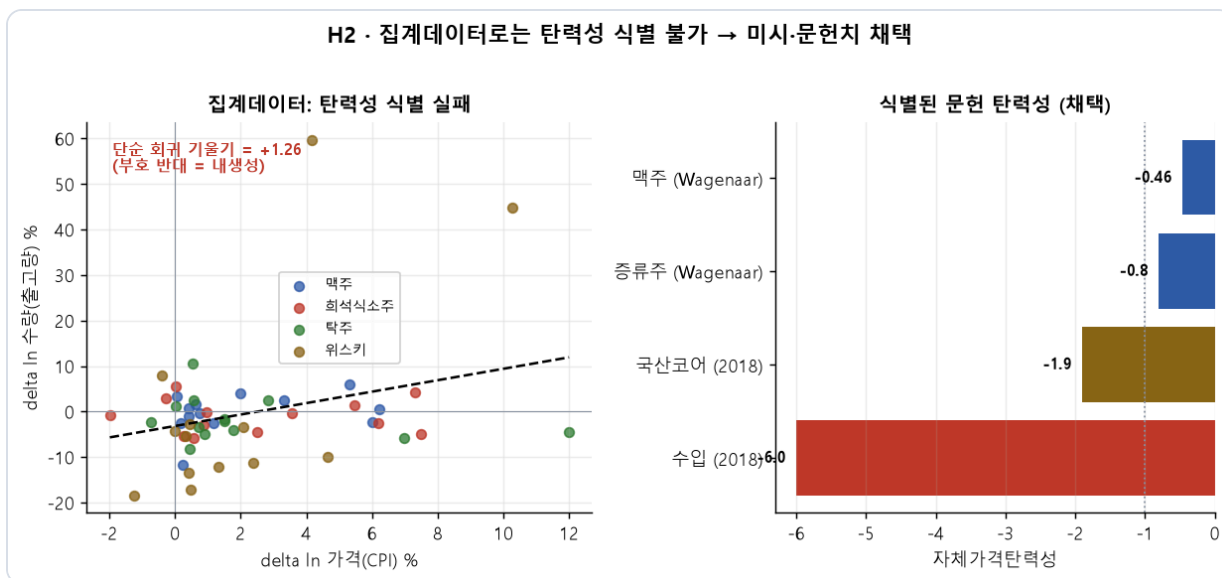


그림 3-1. 주종별 가격·소득탄력성 예비추정

3.4 결과 ② — 소득분위별 세부담: 중산층 최다(역U자)

재정패널(NaSTaB) 1~17차로 소득분위별 가정용 주류지출(=세부담의 대리)을 보면, 통념과 달랐다.

⚠ 범위: 재정패널 주류비는 **가정 내 구입분만** 포착한다(음식점·주점 소비는 외식비에 합산). 아래는 가정용 주류에 한한 관찰이다.

표 3-2. 소득분위별 가정용 주류지출 비중(재정패널 17차, 2023 기준)

홈	← 뒤로	분위	D01	D04	D05	D07(정점)	D10
주류/소비지출(%)			0.25	0.75	0.77	0.90	0.75

절대액은 소득과 함께 단조 증가(D10이 D01의 약 23배)하지만, 소비 대비 비중은 역U자 — 최저소득에서 가장 낮고, 중·상위중(D07)에서 정점을 찍은 뒤 최고소득에서 낮아진다. 즉 가정용 기준으로 주류 세부담은 **중산층에 가장 무겁다**. “저소득층에 가장 무거운 단일 역진세”라는 통념은 가정용 기준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. 본 연구는 소득수준별 탄력성을 결합해 세제 인하의 계층별 **수혜·부담**을 정량화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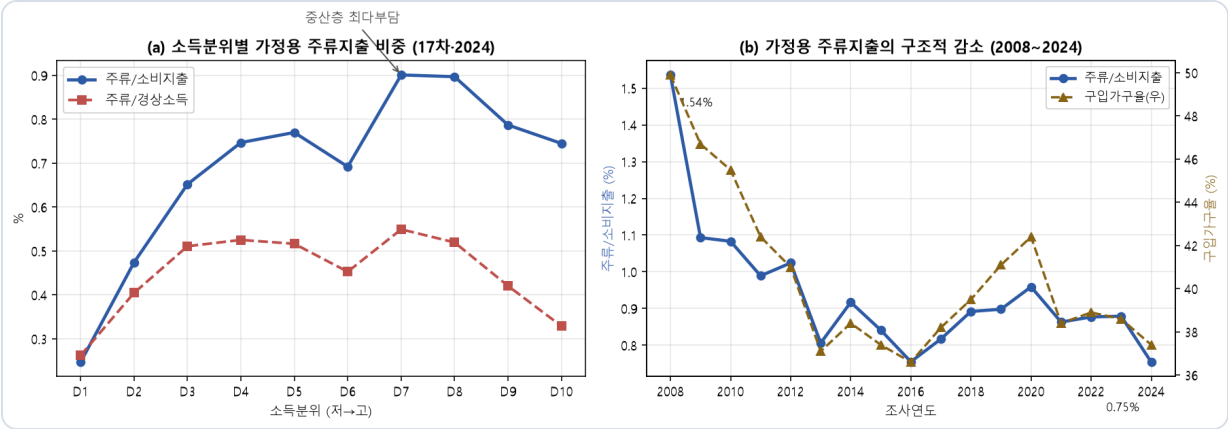


그림 3-2. 소득분위별 가정용 주류지출 비중(재정패널 1~17차)

3.5 연관산업(음식점업) — 가격과 매출

소매 단계의 인하가 **주류를 파는 음식점업의 소비자(외식 주류 가격)**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, 한국은행 CPI의 **소매 주류**와 **외식 주류(생맥주·소주 등 외식)** 지수를 나눠 추적한다. 이는 소상공인이 세제 혜택을 소비자와 나누는지, 마진으로 흡수하는지를 가르는 지점으로, 본 연구에서 대조군을 둔 정식 사건연구·회귀로 특정한다.

가격·수량의 변화는 특히 **주류를 파는 음식점업(호프·주점·일반음식점)** 매출로 이어진다. 이는 소상공인 매출의 첫 마디로, 업종별 사업자 수·매출 지표(폐업률 포함)와 연계해 세제 변화가 동네 가게에 미치는 효과를 추적한다.

CHAPTER 4 · 가설 H3

세수 — 깎으면 얼마가 줄고 얼마가 돌아오나



홈

4.1 설계와 코드

← 뒤로

세율 인하는 단기 세수를 줄이나, 소비가 살아나면 일부가 다시 채워진다. 탄력성을 반영해 세가지 세제(맥주 종량세 인하·소주 기준판매비율 확대·교육세 통일)의 순효과를 시뮬레이션한다.

탄력성 반영 세수 시뮬레이션(개념 코드)

```
def revenue_change(base_Q, base_tax, d_tax_rate, elasticity=-0.26):
    d_price = d_tax_rate * passthrough          # 전가율 반영 가격 변화
    new_Q    = base_Q * (1 + elasticity*d_price) # 수요 반응
    new_tax   = base_tax * (1 + d_tax_rate)
    return new_Q*new_tax - base_Q*base_tax      # 세수 순변화(주세+교육세+부가세)

total = sum(revenue_change(**s) for s in scenarios) # ≈ -1,063 ~ -1,476억원
```

4.2 결과

세 가지 세제를 동시에 시행할 때 예비 시뮬레이션에서 **순세수는 약 -1,063~-1,476억원** 규모로 추정된다. 채워지는 폭은 크지 않으며, 본 연구에서 주세·교육세·부가세 파급을 포함한 순효과로 정밀 산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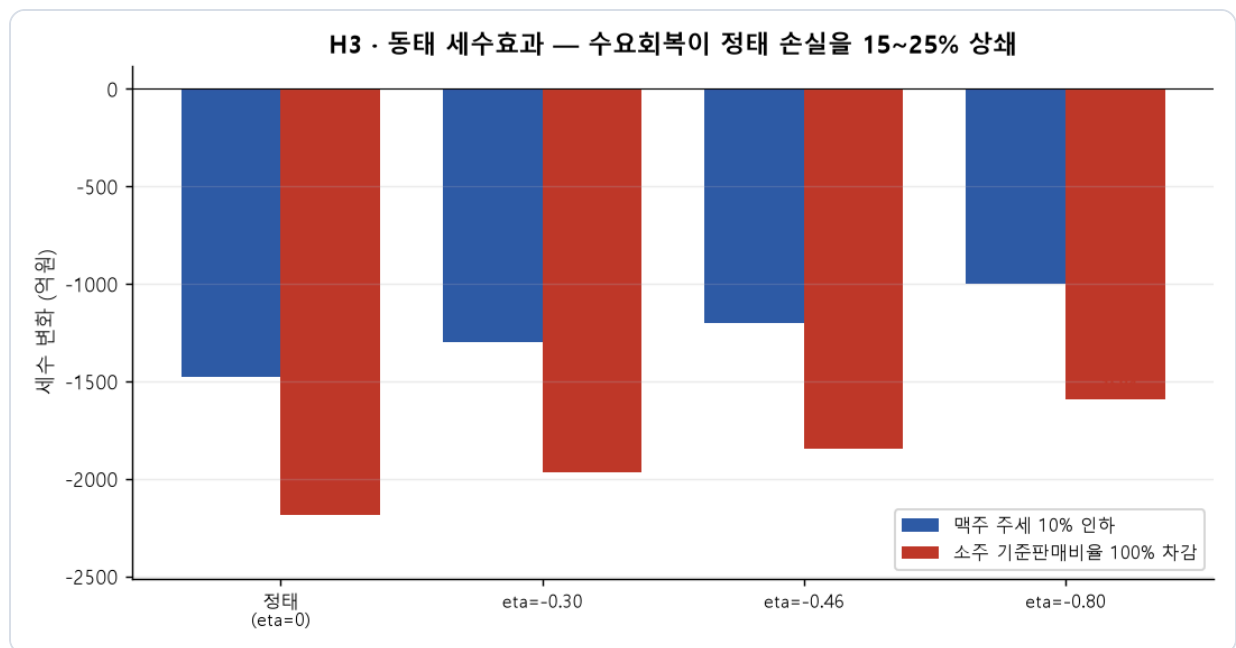


그림 4-1. 세제별 세수 변화와 순효과 예비 시뮬레이션



데이터·코드·재현

모든 결과는 공개 공식통계와 승인받은 미시데이터에 근거하며, 협회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.
원자료·표·차트는 [데이터 카탈로그](#)에서 CSV로 내려받을 수 있다.

표 5-1. 가설별 사용 데이터·산출물

가설	핵심 데이터(CSV)	산출물
H1	liquor_shipment_tax · mfd_sales · cpi_liquor_monthly · ppi_liquor_monthly · dart_product_price	exf_vs_ppi.png · h1_eventstudy.png
H2	cpi_liquor_monthly · household_alcohol · nastab_alcohol_panel	h2_elasticity.png · nastab_regressivity.png
H3	liquor_shipment_tax · master_price_table	h3_revenue.png

자료의 함정: ① 식약처 ‘소주’ = 국세청 ‘희석식+증류식소주’ — 분모를 맞춰야 단가가 왜곡되지 않는다. ② 맥주·탁주는 2020년부터 종량세라 세전출고가 시계열이 2020년 전후로 단절(수준은 DART로 본다). ③ 국세청 통계에 2023년이 없어 해석에서 제외한다. ④ 위스키는 수입 비중이 커 식약처(국내분)와 국세청 출고량이 어긋난다. ⑤ 재정패널은 가정용만 포착.

참고문헌

Wagenaar, A. C., Salois, M. J., & Komro, K. A. (2009). Effects of beverage alcohol price and tax levels on drinking. **Addiction**, 104(2), 179–190. <https://doi.org/10.1111/j.1360-0443.2008.02438.x>

Nelson, J. P., & Moran, J. R. (2020). Effects of alcohol taxation on prices. **B.E. J. Economic Analysis & Policy**, 20(1). <https://doi.org/10.1515/bejeap-2019-0134>

Shang, C., Ngo, A., & Chaloupka, F. J. (2020). The pass-through of alcohol excise taxes to prices in OECD countries. **Eur. J. Health Economics**, 21(6). <https://doi.org/10.1007/s10198-020-01177-w>



홈



← 뒤로

이준규, 송은주 (2018). 주세의 종량세 전환이 외부효과에 미치는 영향. **세무와회계저널**, 19(2).

<https://doi.org/10.35850/KJTA.19.2.03>

이기환 (2025). 맥주 주세가 소매점 번들링에 미치는 영향. **산업경제연구**, 38(3).

<https://doi.org/10.22558/jieb.2025.6.38.3.309>

※ 본 보고서의 수치는 공개데이터 기반 예비 근사치이며, 코드는 핵심 로직을 발췌·정리한 것이다. 인과 특정과 정밀 추정, 전체 재현 스크립트는 본 연구에서 제공한다.